

연두콩·고밤비·포니·개코…뷰티 인플루언서를 아시나요?

“연예인보다 가성비 좋다”…사이버 셀럽 붐

SNS, 유튜브 트렌드 주도 막강 영향력
뷰티·패션업계, 화보·제품출시 등 제휴
비용 대비 광고효과 큰 가성비 매력적



‘연두콩, 고밤비, 포니, 개코...’
요즘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인기
가 높은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들
이다. 요즘 이들에 대한 뷰티·패

션업체들의 러브콜이 뜨겁다.

인플루언서(Influencer)는 ‘영향력 있는 사 람’이란 뜻처럼 각종 SNS와 유튜브 등 인터넷 과 모바일의 플랫폼에서 특정한 테마나 분야를 전문 분야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사람이다. 요즘 뷰티·패션업계는 인플루언서들의 사이버 공간 인기와 트렌드세터로서의 영향력에 주목, 화보 촬영부터 협업 제품 출시 등 다양한 형태 로 손을 잡고 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가 60만명이 넘는 연 두콩은 LG생활건강 편집숍 브랜드 네이처 컬렉션과 손잡고 공식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 송을 시작했다. ‘연두콩, 네이처컬렉션 일일 알바되다’라는 이름으로 네이처컬렉션 매장에 서 일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 에게 피부 관리 아이템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형식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만여명인 희주는 네



포니가 한섬 SJSJ 의상을 입고 메이크업 팀을 소개하는 디지털 콘텐츠(왼쪽부터 시계방향). 연두콩이 LG생활 건강 편집숍 네이처컬렉션 일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등장한 공식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희주가 모델로 등장한 네이처리퍼블릭 가을·겨울 시즌 메이크업 화보.



이처리퍼블릭의 가을·겨울 시즌 메이크업 화 보 모델로 등장했다. 도시적이고 신비로운 느 낌의 희주의 이미지가 가을·겨울 시즌 메이크 업 트렌드와 부합해 화보 촬영을 했다는 게 네 이처리퍼블릭의 설명이다.

아예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색조 화장품 브랜드도 있다. 가수 김태육이 대표로 있는 아이패밀리SC와 개코(민새름)가 합작해 론칭한 ‘뽀엔’이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는 화장법, 화장품 사용법, 퍼스널 컬러, 성

형메이크업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정보를 제 공하고 소비자와 더욱 친밀하고 자유롭게 소통 하는 것이 주된 경쟁력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수 9만 명이 넘는 고밤비 는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과 손잡고 협업 제품 ‘크림투샤인 틴트 패키지’를 출시했다.

●패션업계도 활발, 포니 메이크업 세계 1200만 명 시청

뷰티에 이어 패션업계도 뷰티 인플루언서에 주목하고 있다. 포니는 한섬의 캐주얼 브랜드 SJSJ의 론칭 20주년을 맞아 디지털 콘텐츠를 공동 제작했다. 포니가 SJSJ 의상을 입고 메이 크업 팀을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영상이다. 한 섬은 “포니가 뷰티 브랜드와 협업한 적은 있지 만, 패션 브랜드와의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라 며 “중국 웨이보 500만명, 유튜브 300만명, 인 스타그램 419만명 등 세계 1200만명이 포니의 메이크업 영상을 시청한다”고 소개했다.

‘사이버 셀럽’인 인플루언서들의 인기는 SN S와 유튜브가 분야를 막론하고 주요 마케팅 플 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이 뷰티·패션업계 트렌드를 주도하고 광고 모델 못지않은 마케팅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 예인 모델에 비해 저렴한 모델료로 광고 효과 입증이 가능한 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가성 비가 최고의 매력포인트로 꼽힌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주간경제 10~13일

코스피지수	2473.62	▲	+79.15
코스닥지수	663.08	▲	+10.26
日 닛케이 지수	2만1155.18	▲	+464.47
中 상하이 종합	3390.52	▲	+41.59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2	▲	+0.03
환율 (원 · 달러)	1127.50	▼	-19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7010.69	▼	-436.64

지수는 13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오늘의 얼굴

황창규 KT 회장, 머스크 회장과 회동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과 회동을 가졌다. 황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손의 스페이스X 본사에서 머스크 회장, 그랜 숏웰 스페이스X 사장과 만나 무궁화5A 위성 발사계획 및 향후 파트너십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황 회장은 무궁화5A호 위성이 10월 말 발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무궁화5A호는 한국과 약 7500km 떨어진 중동 지역까지 교신이 가능한 위성이다. 황 회장은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 회장과 의 만남에서 자율주행,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만남이 KT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경제

세계 최고의 직장 베스트10 LG 10위…삼성성은 65위 그쳐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15일 발표한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LG가 조사대상 58개국 2000개 기업 가운데 10위에 올라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톱10에 들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는 65위에 그쳤다. 500위 안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총 18개로 CJ제일제당 67위, 네이버 132위, 포스코 196위, 현대글로비스 264위, 아모레퍼시픽 275위를 기록했다. 1위는 구글 모회사인 미국의 IT기업 알파벳이 차지했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일본거레쓰그룹, 애플, 노블에너지 등이 뒤를 이었다.

순위	기업	국가
1	알파벳	미국
2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3	일본거레쓰그룹	일본
4	애플	미국
5	노블에너지	미국
6	다임러	독일
7	윌리엄스	미국
8	IBM	미국
9	인베스터AB	스웨덴
10	(주)LG	한국
33	LG디스플레이	한국
:	:	:
65	삼성전자	한국

SWC 관람 열기 핫! e스포츠 성공예감 굿!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서머너즈 워’ 서울 본선 1200여명 열광
스킷 우승…11월 LA서 글로벌 최종전



글로벌 e스포츠화를 꿈꾸는
모바일게임 ‘서머너즈워: 천공
의 아레나’가 한국 대표 선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컴투스 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SWC)의 서울 본선을 14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개최했 다. 이번 대회는 한국 대표 선수 2인을 가리는 최종 오프라인 본선으로 경기 전부터 수많은 팬들의 관심과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

실제 SWC 서울 본선을 보기 위해 3000여 명의 유저들이 관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현장엔 추첨을 통해 선발된 유저들과 당일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을 포함해 약 1200여명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팬들은 선수들을 향한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4시간 넘게 이어진 오랜 경기 시간에도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컴투스의 글로벌 인기 모바일게임 ‘서머너즈워’를 종목으로 한 e스포츠대회 ‘SWC’의 서울 본선이 14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1200여명의 팬이 객석을 가득 채운 대회장 전경.

사진제공 1 컴투스

컴투스는 쉽고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방송인 허준과 서머너즈 워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재미 있는 해설을 제공했다.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치 등 다양한 채

널로도 온라인 생중계해 현장을 함께 하지 못한 유저들도 모두 함께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한국 최강자의 자리는 이장호(스킷)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부대장 부대찌개 “식재료 신선·고급화 추구”

‘부대장 부대찌개’는 바른 외식문화와 기업을 추구하는 22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수제 햄과 소시지 직영공장 제조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당일 제조, 전국 1일 배송을 원칙으로 각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한다.

식재료의 신선함과 고급화 덕분에 부대장부대찌개는 가맹점 매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로 유명하다. 기업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도 성실히 수행중이다. 매년 사랑의 밥차를 기증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벌써 20여 대를 기증했다.

지난해에는 김병갑 회장과 부인인 최순남 부사장이 모두 고객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경기 100회, 101호로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지난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개인 기부의 활성화와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한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1억 원 이상을 기부해야 가입할 수 있다. 부대장 부대찌개 김병갑 회장은 “앞으로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더 활발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집 1 신하늬 기자

경제현장.jpg



한국유방건강재단이 노동영 이사장(왼쪽 첫번째), 라네즈 모델 이성경(왼쪽 네번째), 아모레퍼시픽그룹 배동현 사장(왼쪽 일곱번째)과 일반인 참가자들이 15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17 핑크런 마라톤에서 유방 자가검진 슬로건 ‘아리따운 내가슴에 333’을 외치고 있다. 핑크런은 여성 유방건강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핑크리본캠페인의 일환이자 참가비 전액이 한국유방건강재단의 저소득층 수술치료비 지원 사업에 기부되는 마라톤 대회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1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운 내가슴에 333’ 외쳐요.”